

海·外·資·料

世界電子市場의 動向

韓國精密機器센터 <提供>

1972년도 世界主要國의 貿易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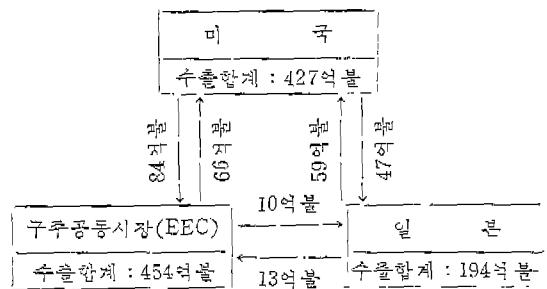
I. 概 況

世界經濟는 現在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 해에는 美國이 1893년 이래 最初로 國際收支赤字를 만나게 되었고, 失業率도 5.9%에나 이르게 되어 美國으로서도 現狀打開을 서둘러야 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따라 自由友邦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美國의 經濟 優位에서 後退, 이에 따라 世界經濟의 多極化 時代가 오고 있는 징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現在 美國業體들은 他先進國이 自國產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한 制度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美國政府는 계속 自由 개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美國業體가 他先進國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고主張하는 것은 美國의 經濟的 絕對 優位를 否定하는 態度이고, 더욱이 이들의 西歐 및 日本의 經濟力의 美國과 同一水準에 이르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諸事項들로부터 미루어 보면 美國은 최소한 日本 및 西歐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經濟的 원조국 내지 優位國에 시시 同等한 立場을 취해야 할 만큼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한걸음 더 나가서 世界經濟의 分極化를 예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

自由主義 진영의 極端分極化를 초래할지도 모를 現在, 世界가 당면한 經濟問題들은 美國, 西歐 및 日本의 相互力學問題가 심화되어 全世界에 影響이 파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體市場을 가지고 있는 西歐는 방어적인 立場이고, 自體市場이 없는 日本이 가장 공격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자유진영의 지도국인 美國은 1970년까지는 국제수지흑자를 반세기간 기록해 온 절대 우위의 원조국이었으나, 西歐의 保護貿易 日本의 과도한 진출에 덧붙



資料 : Electronics 5월 22일

어 월남전 같은 계속적인 지출로 71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 이전에 쓰라린 무역전쟁을 경험한 世界各國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반면에 오늘날 이루어진 경제적인 난관을 조화있는 세계 무대확대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태도가 美國·日本 및 西歐諸國의 各種 政策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電子工業 分野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연도에 만난 미국의 섬유輸入 Quota制 같은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市場의 世界市場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美國이 保護貿易으로 復歸하면不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이 현재 미국내의 우수한 電子業體들은 世界的企業(multi-national Enterprises)로서 이들 企業은 自體成長 때문에라도 世界市場의 自由化를 위해 多角度로 노력하고 있다.

70年 世界人口는 35억인데 앞으로 15年 후 85年년에는 50억이 될 것이고, 이 중 Asia지역 人口가 60%증가, Europe 및 Africa地域人口는 26%增加, 미주 地

世界 電子市場의 연도별 비중 전망

	1970	1980	1985
미 국	49.8%	41.4%	39.5%
자유권영	33.0%	41.6%	43.5%
기타지역	17.2%	17.0%	17.0%

資料 : Home Furnishing Daily

城人口는 불과 14%정도 증가하리라고 GE社의 Perry 씨는 발표했다. 1.5金은 世界的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시장 규모도 두배 가까이 확대하리라고 보고 있다. 市場이 擴大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世界貿易이 擴大해야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라도 오늘날의 經濟問題는 世界貿易의 均衡있는 擴張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새로운 길시문 모색하는 과도적인 世界電子工業과 우리나라 電子工業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II. 미 국

미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年度에는 1893年 以來 약 80年 만에 國際收支赤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1971年度 統計에 의하면

- GNP : 10,468억불
- 상품수출 : 43,553억만불
- 상품수입 : 45,602억만불
- 무역적자 : 2,047억만불

70년도에 20억불 흑자로부터 71년도 20억불 적자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경기불황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문제가 극히 심각하다. 또한 소비자 物價指數面에서 살펴보면, 1951년부터 1967년까지 연평균 1.4%정도 증가상승의 안정을 보여왔으나, 1967년 이후 오늘날까지 급격히 물가가 올라 연평균 5%씩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失業面에서 보면 71年度 全體勞動力 84백만명 고용 79백만, 失業 5백만, 失業率 5.9%로써 美國內的으로 보아서는 失業問題가 重大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고 inflation 또한 미국이 극복해야 될 당면 과제라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諸問題를 안고 있는 産業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電子業界이다. 美國

美國 電子製品 輸出入

<表 1>

單位 : 천불

	1971	1970	1969	1968
COMMUNICATIONS & INDUSTRIAL				
수 출	1,170,252	2,438,855	1,896,857	1,495,917
수 입	346,684	514,319	437,917	341,584
CONSUMER				
수 출	95,009	76,946	106,587	85,223
수 입	1,333,600	1,152,498	995,952	711,732
SOLIDSTATE				
수 출	370,527	419,734	435,714	204,379
수 입	179,091	157,153	104,330	71,543
ELECTRON TUBES				
수 출	108,715	125,776	91,862	78,529
수 입	34,416	37,745	43,147	55,560
OTHER COMPONENTS				
수 출	304,837	463,004	423,862	337,116
수 입	329,583	328,138	243,888	176,783
합 계				
수 출	2,049,341	3,524,315	2,864,882	2,201,164
수 입	2,223,374	2,189,858	1,825,234	1,357,202

資料 : (EIA from Commerce Department data)

의 電子産業은 단위 분야로 구분되어 취급된 以來로 最初로 71年度에 赤字를 나타냈는데, 아래 표에서처럼 70년도 최고의 흑자액 13억불에서 71년도에 2억불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 행정부 당국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電子産業을 취급하게 되었다.

電子産業의 70年度와 71年度의 收支差與 15억불 중 輸入減少가 1,475억만불, 輸入增加가 불과 34억만불로서, 다시말해 71年度 國際貿易赤字는 輸出減少에 基因한다고 보아야만 한다. 分野別로 보아서 수출은 全般的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특히 通信 電子計算機 部門이 1,263억만불이나 輸出이 減少하고 있다. 한 가지로 말하면, 오늘날 美國 電子工業의 문제점은 Computer 販賣不振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국제환율 재조정 효과의 영향이 나타나려던 아직 數個月 더 있어야만 하고, 또한 Computer 部門에서는 美國이 他國의 경쟁력을 하지 않는 품목이므로 환율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 獨占品으로서, 오히려 收入만 減少되고, 單價引下로 市場이 擴大되리란 기대를 하기에 헛뜰기 때문에 美國의 電子工業이 72年度에는 가장 잘 되어야 71年度

赤字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정도만이 기대되고 있다.
 美國 行政府는 財務省長官 Connally와 商務省長官 Peterson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가지 輸出振興 政策을 計劃하고 있으나 短期的으로는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計劃들이다.

1. 財務部長官 輸出振興計劃

- (1) 73年度에 EEC諸國의 關稅率引下壓力
- (2) EEC의 非關稅 장벽 절제 압력
- (3) EEC의 對日本 輸入規制 완화 압력
- (4) 日本의 輸入 投資에 대한 개단 압력

2 美議會 議決事項

DISC(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을 95%以上 輸出時 設立, 輸出收入 50%에 대한 租稅면제.

3 商務省長官 輸出振興計劃

- (1) 海外市場 情報을 Computer化하여 業界에 提供.
- (2) 경쟁국 무역제도의 실사 분석.
- (3) 외무부의 상무관 조직을 海外市場 개척에 적극 노력케 함.
- (4) 미연방 RWD 자금(170억불) 중 민간기업 연구 개발에 이용토록 연구활동 확대.

上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진흥에서 미국경제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한 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해외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또한 미국의 기술을 계속 세계 정상에 더부르도록 유지시킴으로써 미국은 고도의 기술품을 輸出하겠다는 명확한 태도 표명이다. 덧붙여서 지난 5월 12일 商務省長官 Peterson은 Burke-Hartke案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미국내 산업과 국제무역을 위해서 T.V등에 輸入 Quota를 실시한다는 것은 커다란 해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오늘날 美國內 動向에서 미루어 보면 미국이 2~3년내에 가정용 전자제품 輸入에 Quota制 등을 실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만 하리라고 믿는다.

반면에 財務省長官 Connally와 商務長官 Peterson은 명확히 Anti-dumping法과 相殺關稅를 강화할 뜻을 밝히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일련의 實踐事項으로, 지난 5월 19일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가정용기기에

한 相殺關稅 적용여부 調査始作, 5월 18일에는 Canada로부터 수입되는 알미늄의 점핑 여부 調査始作, 얼마전 5월 초순에는 Canada로부터 輸入되는 타이어에 相殺關稅를 부과하기로 決定公告 등 연속적인 강화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가정용기기의 해외조립 재수입에 대해서는 어하한 논쟁이 없으므로 TSUS item 800 00號는 存續하리라 믿어지며, 美國內 輿論도 개발도상국이 補助金등을 주어서라도 發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음으로 우리 나라는 아직 문제 대상국으로 취급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미국은 소형 가정용기기 국내 생산을 증진하고 점차 많은 부품을 輸入品에 의존하고 있음으로, 이러한分野를 적절히 개발하던 미국에 수출 전망을 밝다고 보아진다.

문제점은 한국 순수 부가가치액(가득액)이 50% 이상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일제 부품이 완제품에서의 비중이 50%以上이 되면 美國·日本의 당면한 문제들 속으로 우리나라도 휩쓸려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 西 歐

西歐에 대한 輸出市場의 開拓이 數年前부터 強調되어 왔지만, 아직시할 輸出 단계에도 미급한 형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電子業界에서 同市場이 다소 까다롭다던지 하는 것 때문에 외면해 왔고, 이에 따라 이 시장에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좋은 영국과의 특수 관계로 일찍부터 상당히 많이 진출했고, 대만도 끈래에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進出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生産 製品이 日本製品과 같은 형태임으로 歐州市場에 수요 제품과 다소 다르고, 西歐市場에 알맞는 製品을 개발하는데 하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西歐市場에 침투하기 위해서 日本과의 밀접한 관계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수 없다. 西歐는 日本의 急速한 進出에 위구감을 느끼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製品의 原資材 일본 의존도가 높음으로 한국 원산이 否定되고, 日製로 취급되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이다.

同市場의 主要國家인 프랑스·서독·영국의 電子工

業現狀을 고찰하여 시장개척 방안을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1. 프랑스

프랑스의 71년도 공업 생산은 5%증가, 민간 소비는 6.25%증가를 보여 西歐에서 가장 증은 경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증가율보다 소비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産業業中에서 電子製品 生産增加가 가장 높아서 70년도에 비해 71년도에는 11%나 增加한 12억 프랑(Fr.) 생산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정용기기가 14%증가, 산업용기기가 17% 증가한데 비해, 부품생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不振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용기기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정용 중심 품목이 지금 Color T.V

<表 2> '71 가정용기기 생산 單位: 만대

품명	'71 생산	전년도 대비 증가율 (%)
라디오	100	20%
T.V	159	
흑백	128	
Color	31	
음향기기		13.5%
녹음기 (Cassette)	63 (49)	14%
전축	88.5	13%
라디오-전축	13	30%

로 옮겨가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71년도 산업용기기 생산에서 Computer부문 증가율이 종래 연평균 18%보다 下廻하고 있으나 수출은 25%정도 증가하고 있다.

부품생산이 不振한 理由는 輸出이 不振했기 때문이고, 부문별 생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表 3> '71 부품 생산 單位: 백만프랑

품명	'71 생산	전년도 대비 증가율 (%)
전자관류	654	+4%
반도체류	556	-17%
수동부품	1,586	-0.5%
합계	2,790	

프랑스에서 가정용 전자기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EEC역내 수입이 80%정도 차지하고 있고, 日本은 상당히 진출하고 있으나, 72년말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日佛業協定"에 의해 日本輸出品에 限制的인 制裁가 가해지고 있다. 同協定을 73年度에는 저 키결트록 프랑스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Color T.V 방식은 프랑스 개발 특허인 SECAM 방식으로 日本業體가 生産할 수 있는 것은 Sony社의 13인치 볼카하브로 日本의 Color T.V수출은 현상대로는 무리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生産 對佛輸出品은 종종 日製로 半정이 나서 日佛業協定의 수량 규제에 묶이는 사례가 많음으로, 한국의 생산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對佛輸出은 현 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아야만 한다.

2. 西獨

西獨의 電子工業에서 産業用機器는 71년도 生産이 增加한데 비해 家庭用機器는 71년도에 生産이 감소

'71 산업용기기 생산

<表 4> 單位: 백만마르크

품명	'71생산	'70생산	증가율
Computer	2,700	2,700	0
의료용기기	800	735	-8.8%
자동제어기기	1,700	1,700	0
시험장치	120	150	-20%
계측기기	1,400	1,300	
경보장치	400	400	
무선통신기기	900	900	
전화장치	3,200	2,750	+16.4%
합계	11,220	10,635	+5.5%

되었고, 부품도 생산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과 같은 이유로 人件費가 많은 米중을 차지하는 가정용기기 生産을 위해서 西獨資本이 海外로 상당히 流出되고, 또한 輸入도 急增하고 있다. 반면에 고급기술이 필요한 산업용기기 生産에 주력하여 이 부문 수출 및 국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西獨 가정용기기의 중심 품목은 Color T.V로 되었고, 흑백 T.V는 사양화되어 가고 있지만, 시장의 대수 72년도 수요 전망으로 보면 여전히 흑백이 다소 많

은 138만대이고 Color는 110만대까지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보아진다. 西獨가정용기기 수요의 전반적인 추세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제품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表 5> '71 가정용기기 생산 單位: 數量; 천대 / 금액; 백만마르크

품명	'71생산	'70생산	증가율
Color T.V			
수 량	896	922	-3%
금 액	1,348	1,315	+3%
흑백 T.V			
수 량	1,623	1,992	-19%
금 액	652	833	-22%
포라블, 자동차 포켈라디오			
수 량	4,110		-7%
금 액	665	720	-7%
테이블 라디오			
수 량	1,266	1,547	-18%
금 액	354	392	-10%
라디오 결합			
수 량	247	328	-25%
금 액	118	142	-17%

西獨市場에서 輸出品 占有率 推移

<表 6> AEG 텔레폰겐 資料(%)

	69	70	71	75	80
라디오 수신기					
Pocket型	100	100	100	100	100
Portable型	20	32	58	65	75
Home型(모노)	35	58	70	100	100
Hom型(스테레오)	4	11	18	30	50
흑백 T.V 수상기					
... Portable型	33	42	57	85	90
기 타	11	23	29	85	90
Color T.V 수상기					
電 管	1	4	6	17	30
Player	28	47	51	50	40
Record Changer	7	10	30	45	60
Tape Recorder					
Open Reel型	—	—	42	45	42
Cassette型	—	—	98	100	100
V T R					
Video Disk	—	—	—	0	0
VideoTap Recorder	—	—	—	50	40

는 것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통치는 시장 예견 자료인 텔레폰겐의 가정용기기 시장에서 輸入品 점유율 전망을 보면, 라디오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리라고 한다. 거의의 품목에서도 수입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東歐諸國 중에서 西獨은 비교적 비관세 장벽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개척하기에 용이한 국가이지만, 전압이 220볼트라는 품 시장정보에 보다 예민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참고로 西獨 Color T.V는 PAL방식일므로 앞으로 Color T.V 수출이 문제될 때는 對西獨輸出은 PAL방식 기기를 생산 수출해야만 한다.

3. 英 國

영국의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흑백 T.V만이 감소하고 있다. 영국은 지금 흑백 T.V에서 Color T.V로 가정용 중심 품목이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表 7> '71년 판매량 單位: 만대

품명	'71판매량	'70판매량	증가율(%)
Color T.V	98	50.4	+94.4%
흑백 T.V	175.8		-3%
녹음기	110		+45%
라디오	490		+61%

시장 수요에서 녹음기는 80%점유, 라디오는 80%나 차지하고 있다. 아래 수입국별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홍콩, 대만도 괄목할 만한 진출을 한데 비해 우리는 아직 이렇다한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業者들도 보아서 녹음기 및 라디오의 좋은 수출 시장임에 틀림 없다고 믿어진다.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문제는 日本의 急速한 對英國 進出이다. 예컨대 1971년도의 日本의 對英國 輸出增加를 보면 철강제품이 4.2배로 증가, 승용차가 4.1배로 증가, T.V수상기가 3.6배로 증가, 탁상용 전자계산기가 1.9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철강제품의 對英國 輸出을 日本業者들이 自律規制하고 있지만, 그 외의 품목에 비해서는 日本內에서 자율 규제하지 않고

<表 8> '71 輸入別 國別 통계

(1) Tape Recorder 수입 합계 800천대		
日 本		410천대
오스트리아		904 "
과 란		32 "
데 란		24 "
(2) 흑백 T.V 수입 합계 204천대		
日 本		100 "
Irland		40 "
홍 콩		72 "
스 련		4 "
(3) 라디오 수입 합계 3,985천대		
홍 콩		2,300 "
日 本		450 "
데 란		320 "
(4) Color T.V 수입 합계 85 "		
日 本		50 "

이므로 英國은 日本의 과도한 침투를 견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電子製品的의 경우 日本의 71년도 對英國 輸出增加가 볼 과도해서 라디오는 91% 증가, 부품은 103% 증가 등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다직 日本 英國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한 명확한 구체적인 提案이 서로가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데, 현상대로 나아가면 英國이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製品에 Quota制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英國의 規制 대상이 될 理由가 없으므로 製品이 韓國化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믿어진다.

IV. 東 歐

最近 닉슨 大統領은 東西 긴장완화와 美國輸出振興을 위해서 東歐諸國에 대한 전략물자 輸出禁止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서 對東歐 Computer 및 telecommunication hardware 輸出은 상당히 伸張되리라고 보고 있다. 現在까지 美國 및 西歐의 對東歐輸出에 저해 요인이 되던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전략물자 對東歐 輸出禁止
- 東歐諸國의 西方側技術 依存 회피
- 東歐諸國의 근본적인 自立意識
- 輸出時 저쳐야 되는 카니톤은 절차 및 거래계약까지 6개월~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 레탈 수단(외화 결제)에 관한 문제점.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전략물자 판매 완화 정도로 東歐市場이 개방된다고 기대되지는 않고 있다.

東歐諸國은 아래 설명의 Comecon 6개국이 공동으로 5개년(1971~1975)개발 계획으로 同地域 自立 및 자금 자족 경제수준까지 도달한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西方의 高級技術品인 Computer 輸入에도 얼마간의 限度가 있고, hardware 자체의 輸入보다 위선 등을 고려해서 how-how를 輸入 生産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므로 방대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단지 東歐諸國이 현재 TTL, style의 Computer 生産 點에 도달해 있으므로 앞으로 I.C 및 LSI Computer 生産水準까지는 hardware 와 how-how를 西方에서 구입할 것이다.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t of the Warsaw Pect nations
회원국; 소련, 체코, 헝가리아, 폴란드, 동독, 루마니아

이렇던 오늘날 東歐에 대한 西方側輸出이 급격히 증가되어 총규모 1만불이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아직 소규모의 시장이고, 장기적으로 보아서도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다.

현재 서방측에 흘러나오는 비교적 큰 덩어리의 주문은 Comecon지역 상호간의 貿易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일부분이고, 이들의 長期目標은 궁극적으로 自立化

<表 9> Comecon 화폐의 환율

	화	레	달러와공식 환율
스 련		ruble	1.22
東 獨		mark	3.223
체 코		corwn	(서독과일독)
불 가 리 아		leva	6.60
헝 가 리 아		forint	1.08
루 마 니 아		lei	28
미 고			6

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크게 기대되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외화준비는 어려운 경제체제이고 환율도 정부가 지정하는 환율이므로 공식환율과 관광수입 등을 위한 환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루마니아 공식환율은 \$1 : 6 lei인데, 관광객에게는 #1 : 16 lei까지 교환해 주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가정용기기는 생산능력이 충분하고 국내시장은 흑백 T.V 및 라디오 등에서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외화보유도 부족하므로 수입할 전망은 전혀 없다. 오늘날 東歐市場 開拓이 간간히 논의되지만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立場에서 볼 때는 문제될 수 없는 市場이라고 믿는다.

V. 日 本

日本은 현재 과도한 팽창으로 美國 및 西歐에서 對日本 規制問題가 일어나게 되었다. EEC는 自體에서 생산 소비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美國도 自體整備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日本은 自體 均衡화 힘들게 되어 있다. 인근에는 한국, 때문에 소규모의 시장이 있을 뿐이고, 이들 개발도상국에서도 자립을 위해서 강력한 정책에 뒷받침되어 일본에 도전하고 있음으로 정말로 심각한 디퍼머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오늘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등을 포함한 경제권을 건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들 등달아 작곡들이 日本과 互惠의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相互分業의 경제권 형성이 극히 힘들다.

또한 중공과의 유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런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는 수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日本自體에 근본적으로 均衡시킬 수 있는 경제권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지만, 이러한 것을 형성할 분위기를 일찌 못하고 있다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리라 믿는다.

따라서 日本은 가장 가깝고 비교적 깊은 유대가 있는 한국에 진출, 한국적 경제발전의 충분히 기여하여 한국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나 현명하리라고 보고 있다. 즉 자본의 이익을 일련으로 수탈해가지 않는 자본을 한국에 투자화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西歐 및 美洲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

득과 장기적으로 일본 한국이 分業할 수 있는 中和를 찾을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VI. 韓 國

世界 電子工業은 數年前부터 國際分業化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져 왔다. 그 중요한 예로서 美國 大電子企業體의 Multi national化를 들 수 있고, 極東, 東南亞, 멕시코 등지에 資本投入을 열거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저임금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들 先進國의 開發途上國에 進出하는 契因이 되고 있음은 구태어 重言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러한 分業化가 現在 징조가 나타나기 始作하는 分極化에 상당한 비중으로 영향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先進國의 資本移動이 단순한 低賃金 利用에 국한되고 또한 Multi-national enterprise(國際 규모 회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凡世界的이라는 것은 아니다. 資本移動도 대개의 경우 일정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까지 이동하고 또한 Multi-national enterprise의 형성도 이러한 범위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國際分業化는 일정한 경제권 내에서 확실히 활발히 일어나고, 이러한 分業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거본 실례가 EEC와 Comecon이라고 볼 수 있다.

EEC 경우는 자유무역국이므로 형태면, 운영면에서 공산권 같은 계획 아래 통제된 分業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Comecon은 공산국가로 이들 6개국이 하나의 자대한 단일 국가에서 볼 수 있는 分業化를 始作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제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電子工業이 多極化될 것이지, 단순히 美國, 日本이라는 盟約國家로서 極點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電子工業의 特殊性이라고 믿어진다. 즉, 고도기술품과 생활에 필요한 가정용 전자제품을 상호 동일 수준에서 교류되는 分業化된 경제권이 極點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立場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모색해서 나아가 하리라 믿고 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美國은 아직 우리에게 성실한 원조국이지만, 우리가 美國의 경제권에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다소 멀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新興 日本이 前述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와의 진정한 의미에서 分業化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성실도가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간 우리에게 판매한 생산 시설은 日本에서는 이미

노후한 것들이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일본의 노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동남아를 부는 하나의 진정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日本이 米 배를 생각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